

해체로 읽는 신카이 마코토의 <너의 이름은. 君の名は.>

: 이름 없이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물들에 대해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I. 이름과 사물
- III. <너의 이름은.>에 나타난 해체성
- IV. 이름 없이는 만날 수 없는 세계
-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안윤경, 김현석

초 록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 신카이 마코토는 1인 제작 시스템과 ‘빛의 작가’로 주목 받으며 등장했으나 그의 2016년 개봉작 <너의 이름은.>은 그러한 기존의 그의 작품을 특징지은 요소들로부터 상당부분 스스로 탈피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일본 전통적 인연설인 무스비 테제의 결합으로 내러티브의 풍부함과 열린 해석 가능성의 매력으로 흥행은 물론 앞으로의 작품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껏 고조시켰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바, ‘이름’에 관한 일본 고대 언어관과 현대 언어관의 만남이 나타나며 온전한 ‘만남’을 위해 이름(언어)의 역할이 사건 속에서 다양한 변주로 반복 강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작품에서는 인물들도, 사물들도 접촉하는 주체의 뜻에 따라 그 기의가 유사성의 은유적 역할로 해석이 확장, 유보된다. 기표와 기의라는 구조를 통해 분석된 말과 사물의 관계는 소쉬르를 통해 나타난 현대의 획기적인 사상적 발견이다. 데리다는 소쉬르의 이 개념에서 사물을 비로소 존재하게 하는 ‘차이’에 주목하며, 로고스의 명령에 충실해 온 서구의 로고스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를 해체한다. 이처럼 서구 형이상학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원리가 해체된 이후 대두되게 된 것은 중심의 해체, 주체의 해체이다. 데리다는 이처럼 해체주의를 표방하며 그 동안의 이성 중심주의에 의해 배제되어왔던 수많은 약소자들 및 타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타자들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나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데리다의 ‘해체’개념은 언어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출발점으로 하는 철학적 전략이다. 그가 텍스트를 읽는 방법적 개념으로 등장시킨 은유인 ‘산종(dissemination, 散種)’은 해석 실천(혹은 유희의 방법)으로 작용하며, 어떤 중국적인 해석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의 ‘결정 불가능성’은 그 출발은 무한성이 아니지만 귀결되는 종착지는 무한성이다. 연구자는 인간이 언어의 주체가 아닌 언어의 사용자의 입장이기에, 데리다 역시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진 사물의 세계를 열린 텍스트로 해석함으로써 우리 역시 세계의 해석자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파악하며, 데리다의 ‘해체’와 ‘산종’의 프레임을 통해 사물과 이름의 이야기, 이름을 통한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을 읽어보고자 한다. 또한 기표와 기의의 구조가 이 작품 속에서,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재고하며, 데리다의 해체와 산종 개념을 통해 작품에 나타난 말과 사물의 관계를 살펴봄, 기표와 기의로 세계를 파악하는 우리 역시도 곧 기표와 기의의 일부에 다름없음을 확인한다.

주제어 : 애니메이션, 신카이 마코토, 너의 이름은, 해체, 데리다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에 대한 해체주의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신카이 마코토는 1인 제작 시스템과 ‘배경 왕’, ‘빛의 작가’로 주목 받으며 떠올랐으나 최근 그는 1인 제작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태프들과의 협업을 통해 초기의 감독 자신만의 세계를 조금씩 벗어나 대중의 취향과 재미를 좀 더 섬세하게 고려한 작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초창기 작품에서 특히 집중되었던 빛의 묘사나 배경 디테일의 두드러짐보다는 작품을 구성하는 여타의 요소들과 더불어 내러티브의 완성도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너의 이름은.>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미야자키 하야오에 이어 두 번째로 흥행 수입 100억 엔 돌파를 달성하였으며 역대 일본에서 개봉된 영화 흥행순위 4위에 올라섰다.¹⁾

마코토의 작품은 그 특성상 섬세한 묘사의 아름다움이 일차적으로 눈에 띄지만,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감독답게 문학적, 언어적 요소를 작품마다 내포하고 있으나 특히 <너의 이름은.>은 제목에서부터 시나리오와 소재까지 언어와 사물의 교차적 만남과 이별의 메타포로 정밀하게 짜여져 있다. 신카이 마코토 역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을 묻는 것이며, 이름을 묻는 것으로부터 관계가 출발하고, 작품의 제목을 <너의 이름은.>으로 지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라고 인터뷰 한 적이 있다.²⁾ 마코토 감독이 작품의 소재를 설명하며 언급한 이름에 관한 이야기는 단지 의미적인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서구 철학의 역사 가운데 다양하게 접근

1) 위키피디아, Japanese box office record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D%BC%EB%B3%B8%EC%9D%98_%EC%98%81%ED%99%94_%ED%9D%A5%ED%96%89_%EA%B8%B0%EB%A1%9D&oldid=17528931

2) BIFF 인터뷰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211026&memberNo=15205863>

되어 왔던 주제이며, 특히 구조주의를 연 소쉬르 이후 열띠게 연구되어 온 영역이다. 다양한 언어학자, 철학자들의 사물과 사물의 이름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법 가운데 특히 자크 데리다의 철학에서의 산종(dissemination, 散種: 뿌림과 파종)은 사물과 단어, 각각 그 자체가 독립적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닌, 관계 속의 차이를 통하여 가치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표와 기의가 일대일로 정확하게 맞대응 하지 않기에 해석의 길을 열어두는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신카이 마코토의 <너의 이름은.>에서 나타나는 사물과 이름의 관계도 마치 그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에서는 이름을 묻는 것에서부터 만남이 시작된다는 전제를 시작으로, 일본 전통적 인연설인 무스비 테제가 결합, ‘이름’에 관한 고대의 언어관과 현대의 언어관의 만남, 온전한 ‘만남’을 위해 이름(언어)의 역할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물과 사람 사이에서의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연구자는 사물과 이름의 관계성과 그 구조에 대해 ‘결정 불가능성’으로의 더 열린 해석을 펼쳐나간 데리다의 관점을 통하여, 기표와 기의의 발견이 단지 세계를 파악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마코토의 애니메이션을 해석함을 통해 기표와 기의의 해석 불가능성이 우리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음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며, 이를 통해 마코토의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 아래 연구하게 되었다. 또한 이처럼 작품을 발표해갈수록 단지 비주얼의 탁월함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닌, 내러티브의 풍부한 성장으로 해석 가능성의 그릇을 넓혀가는 감독의 작품의 학문적 연구의 가치 역시 돋보이는 바,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감독의 앞으로의 작품에 대한 기대감 또한 보태어 연구하게 되었다. 너와 나, 명명함으로 관계 맺는 세계에 대해서 언어학과 현대철학에 나타난 논의들 가운데 연구자는 자크 데리다의 해체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이름과 사물

1. 두 세계의 공존

‘만남’ 이 없이 살아 갈 수 있는 생명이 있을까. 작은 해바라기 한 송이도 처음에는 씨앗 한 알이었으며, 부드러운 흙을 만나 심겨져 물을 만나고 빛을 만나고, 따뜻한 계절을 만나 비로소 한 송이 해바라기로 피어나지 않던가. 모든 생명은 이처럼 ‘만남’ 으로 이루어진다. 인간 역시도 생명인 ‘나’ 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본디 ‘나’ 가 아니었던 것들의 만남이 필요하다. 내가 아닌 것들이 만나야만 내가 이루어진다. 그러니 본디 ‘나’ 는 ‘나’ 가 아니다. ‘만남’ 이 나의 시초가 된다.

이러한 만남은 식물이나 동물처럼 ‘살’ 인 육체로 보았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 내가 먹은 음식과 공기와 물이라는 물질의 만남이 그 조건이 되겠지만, 이들과 차별적으로 인간은 이 ‘살’ 의 육체로만 된 것이 아닌 언어적 존재라는 것이 다르다. 데카르트의 제 1명제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를 애써 상기하지 않아도,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다른 아닌 나의 기억, 추억, 고유한 생각들이다. 그래서 이 ‘생각’ 으로 이루어지는 ‘나’ 가 형성되기 위해, ‘살(육체)’ 을 형성하는 만남 이외의 또 다른 만남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육체는 생명 존재의 기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각기관으로써 인간이 ‘말’ 을 학습하여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사물의 세계에서 한 번, 말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다. 그렇게 현상적 세계와 의미의 세계, 두 세계를 거닐 수 있게 된다.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

사회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시스템 이론을 역

설한 루만이 적극 수용하고 의지했었던 스펜서 브라운은 그의 저서 <Laws of form>의 서문을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한 문장으로 시작한다.³⁾ 천지가 조성될 그 때에는 이름 없이 사물들이 나타나지만, 이름을 통해 사물의 기능과 그 역할이 결정되니 이름이 붙여질 때 비로소 만물이 태어나는 것과 같다. 이름이 비로소 사물들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정신작용으로 세계를 생각 속에, 마음속에 담음으로 세계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는 이름을 통해 비로소 사물이 기능함으로 세계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우는 말이다. 세계의 모든 것은 언어로 치환될 수 있으며, 언어는 세계의 사물을 기호화시켜 자기 속에 담을 수 있는 수단이자 조건이 된다. 인간은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의미를 담은 언어를 통해 비로소 세계를 ‘이해함’으로 진짜 세계를 살아간다. 언어를 학습하기 이전, 갓난아기 시절의 나 자신에 대한 기억이 없듯이, 언어는 세계를 기호로 치환시켜 생각에 간직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인간은 두 세계, 사물의 세계와 언어의 세계가 한 몸에 공존하는, 두 세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존재이다. 이와 같이 이름을 통해 만나고,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서구의 치열한 사상적 줄기속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바다. 김춘수 시인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말처럼, 어린왕자와 사막의 여우처럼, 이름으로 관계 맺음을 통하여 서로에게 비로소 의미가 시작된다. 이처럼 우리는 사물들의 세계에 있지만 이름이라 불리는 말의 세계 속에서 의미를 가진 존재로 생명을 얻는다. 헤겔 역시 사물에 이름을 붙임으로 내가 그 사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여겼다. 내가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곧 사물에 대한 해석 이전에 머물러 있기에 의문속에 구속되지만, 이름을 통해 그 존재의 정체를 밝혔을 때 나는 비로소 자유로운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도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명명하는 이름은 의미를

3) Spencer-Brown, George, 『Laws of form』, Bohmeier Verlag, 2011.

낳고, 의미는 세계를 낳는다. 의미의 세계를 언어를 통해 그려나가는 우리는 언어로 ‘살’ 너머의 세계를 창조한다.

2. 데리다의 해체와 산종(Dissemination, 散種)

자크 데리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조이자 해체주의라 불리우는 철학을 제창한 현대 프랑스 철학자이다. 그는 기존의 서양 철학사의 진리관과 형이상학이 로고스의 명령에 충실한 것만을 정의로 간주하는 이상, 다른 타자들에 개방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하기에 수많은 약소자들과 타자들의 부름에 대한 응답과 환대를 주장하며 ‘해체’를 주장했다. 이 해체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겠다는 뜻이 아닌, 지금까지 흘러온 서구 로고스 중심주의의 해체작업을 통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보는 눈을 말하는 긍정적 의미의 해체이다. 여기서 그 유명한 데리다의 텍스트 개념 또한 등장하는데, 이 세계를 신이 써 내려간 권의 거대한 책이 아닌, 세계는 저자가 없는 다양한 만남의 상호 연계성이 짜 나가는 천으로써의 텍스트이며 불교적 표현처럼 상호 만남의 연기(緣起)가 짜 나가는 열린 텍스트라는 것이다.

데리다의 텍스트는 그래서 직물(le textile)짜기의 교직성(交織性)이며, 완벽한 체계가 없고 언제나 상호텍스트(l'inter-texte)와 연합텍스트(le con-texte)가 가능한 열린 구조이다. 이처럼 중심성과 기준의 해체로 나타나는 데리다의 개념들은 앞서 구조주의의 시조이자 언어학의 창시자인 소쉬르의 기표와 기의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있다. 소쉬르를 통한 언어학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름에 이미 그 사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나, 소쉬르 이후 이름과 사물, 기표와 기의 간의 관계성을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이름의 세계와 사물의 세계, 이 두 세계의 만남과 결합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고정적으로 보았던 소쉬르의 주장에서 더 나아가 기표와 기의가 서로 직접적 관계가 없으며, 분리와 결합

이 다양한 사슬들로 끊임없이 변한다고 본 데리다의 핵심 개념 중에는 또한 산종(dissemination, 散種: 뿌림과 파종)이 있다. 기표와 기의가 자의적으로 결합, 분리되며 또한 기표와 기의가 일대일 맞대응처럼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계기로 관독될 것을 대비하여 데리다는 의미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가능성의 모든 의미들을 뿌려두고 해석의 때를 기다리며 그 길을 단지 않고 열어둔다. 이처럼 그의 ‘해체’는 철학적 전략이며, 텍스트를 읽는 방법이다. 데리다는 언어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데리다의 해석에 있어 언어란 어떠한 단독적 용법보다도 관계들의 거대한 망상조직이요, 결코 사용자 개인에 의해 완전히 통제될 수 없는 어떤 것이다.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데리다의 산종은 해석 실천(혹은 유희의 방법)으로 작용하며, 어떤 중국적인 해석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의 ‘결정 불가능성’은 출발은 무한성이 아니지만 그 종결은 무한성이다. 이러한 데리다의 산종의 실천은 우리를 문헌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매우 제한적인 의미의 철학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인간이 언어의 주인인 것으로 믿고 이 이성을 신뢰하고 살아 온 것이 데카르트 이후의, 아니 사상의 역사 그 자체이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내가 이 언어 구조의 주인이 아니라면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 역시도, 우리가 명명하며 살아가는 세계도 결국에는 우리가 온전히 잡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데리다는 이 문제에 대한 항복 선언으로 해체를 외친 것인가? 그가 해체를 외쳤을 때 그는 지금까지 흘러온 서구의 로고스 중심주의를 해체한다는 뜻이었다. 로고스 중심주의를 해체한다는 것은 말과 글의 경계를 넘어 말이든 글이든 모든 언어는 삭제 하에 두어야 할 정도로 확실한 의미도 진리도 그리고 고정된 기의도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모든 유형의 근원주의 그 자체를 해체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의미는 끊임없는 기표와 기호, 텍스

4)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 1989. p.252.

트 속에서 최종적 의미는 결정 불가능하고 결국 부단한 해석이 있을 뿐인 것이 된다.

언어 구조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데카르트의 제 1명제는 이제 ‘나는 말하여지고, 생각되어진다.’로 뒤집혀 우리는 언어에 대해 주권을 보류하게 된다. 지금까지 주어진, 쌓여온 이성의 능력을 통해 파악해 온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 다시 멈춰 서서 주인의 때를 기다리고 온전한 해석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3. 두 세계 사이 표류된 존재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에 의하면 관념이나 상상이 말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말이 사고를 생산한다.⁵⁾ 인간의 생각에 관해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체계를 만들어 온 서구 사상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언어에 관한 사유의 집을 지어왔으나 중국에는 이러한 사고조차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도달한 시점이 다름 아닌 오늘날이다. 기호의 자의성은 우리가 기표를 통해 변치 않는 기의를 만날 길이 없음이 자명해졌으니, 고정불변의 만남을 기대할 길이 끊어진 셈이다. 이는 또한 결국 모든 사물들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의미를 통한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함으로 비로소 존재가 가능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모든 존재와 현상은 각기 독특한 자가성의 의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계기들에 의해 접목되는 관계를 통해서 그 특성이 결정된다. 이처럼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타자를 찾는 욕망과 같다. 관계를 통한 차이 속에서 의미를 확보하게 되기에, 관계되기 이전의 각 개별성은 무의미하다.

제패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이름에 관한 문제를 적극 다룬 바 있다. 정말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이름이 그 대상 자체를 치환하는 코드와도 같

5) 디터 메르쉬, 문화학연구회 옮김, 『매체이론』, 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p.39.

6) 박기수, 『애니메이션 서사 구조와 전략』, 논형, 2004. p.306-7.

(A)유바바 흠! 치히로라고 하느냐?!

치히로 네!

유바바 이름 한번 거창하시군! (유바바 손을 이름 위에 댔다가, 뭔가를 집어내듯 손을 뻗는다. 이름 UP. 성과 치히로의 ‘히로(壽)가 떨어지고 ’ 쉐(千) ‘만 남아 OUT. 유바바의 손 UP. 손바닥에는 3개의 글자가 붙어 있다.

순간 짝 쥐는 손. 반지가 반짝거린다. 유바바 고개를 들고 말한다.)

유바바 지금부터 네 이름은 ‘쉐’ 이라고 해라!

(B)<자막> 치히로, 잘가, 또 만나자!

치히로 치?히?로?

(치히로, 자기 이름을 잊어가고 있다.

하쿠, 치히로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치히로 치히로라면... 아! 이걸 내 이름이야!

(어째서 잊었을까, 놀라는 치히로. 하쿠는 끄덕이고 말한다)

하쿠 유바바는 상대의 이름을 빼앗아 지배하는 마녀지!

(너무 놀라 어이가 없는 치히로) (중략)

하쿠 이름을 뺏기면, 진짜 세계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려!

(그리고 먼 곳을 보며 중얼거린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아!

표 1. <쉐와 치히로의 행방불명> 중에서⁶⁾

이, 이름을 빼앗으면 지배 또한 가능한 것이었다. 아픈 기억이지만 한국이 일제 치하에서 한국어를 빼앗기고 강제되었던 창씨 개명의 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의 정신과 사상은 ‘말’ 로

이루어지니, ‘말’ 을 빼앗기면 생각도 정신도 빼앗기는 것이므로 처음의 정체성을 잃고 다른 페르소나로 강제 이행되는 것과 같다. 자아를 강제 상실하게 하는 조건,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것은 이처럼 말, 이름을 뺏는 것으로 가능하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존재는 주인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정신을 가진 존재가 그를 함락해버리는 것은 마치 전쟁 중 성주가 떠나간 빈 성을 함락해 언뜻 손쉬운 일일 테다. 인간은 정신을 통해 자기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새 지표가 온다면 순응할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테니 말이다. 사물(몸)에 이름(말)이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사물에 대한 정신작용이 가능하며, 이름을 통해 사물의 기능을 해석함으로써 관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물은 이름을 통해 비로소 취해진다. 이름이 사물로 통하는 길과도 같다.

해석과 관찰의 역사를 걸어온 인간은 결국 사물과 이름의 결합에 대한 이 문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이상 주체적 해석에 접근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언어에 대한 주인이 아님을 고백한 셈이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물의 하나에 다름 없는 인간은 기표와 기의의 구조 속에 편승되어 산중의 연속성 속에 나라는 존재의 종착지를 유보한 채 표류하고 있다.

Ⅲ. <너의 이름은.> 에 나타난 해체성

1. ‘너’ 의 이름은 ‘나’ 의 이름이 있기 때문

<너의 이름은.>은 망각의 존재이지만 잊지 않기 위해 열심히 저항하는 인간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바람이 잘 녹아난 영화이다.

1,200년 만에 온다는 혜성을 기다리는 일본의 산골 마을에 사는 여고생 미츠하는 이토모리 미야미즈 신사(神社) 신관의 딸로, 신사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원치 않는 풍습대로 해야 하는 괴

로움과 마을 촌장인 아버지에게서 느끼는 서운함으로 시골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다. 다음 생에는 도쿄의 잘생긴 남자로 태어나게 해달라며 소리를 외쳐보는데, 정말 어느 날 자신이 도쿄의 남고생이 되어있는 꿈을 꾸게 된다. 도쿄의 거리와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도 가보고 신나 있을 무렵, 도쿄에 살고 있던 남고생 타키도 산 속 시골 마을의 여고생이 된 꿈을 꾀다. 반복되는 꿈과 주변의 심상찮은 반응 속에서 이것이 꿈이 아니라 진짜 서로의 몸이 바뀐 것임을 들은 깨닫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타키는 어느 날 부터인가 몸이 바뀌지 않음과 동시에 미즈하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겨 기억을 더듬어 미즈하의 마을을 찾아보지만, 이미 3년 전 혜성 충돌로 인해 사라져버린 마을임을 알고 경악한다. 미즈하가 만든 술인 쿠치카미자케를 매개로 하여 다시 혜성 충돌하던 날의 미즈하가 된 타키는 극적으로 혜성 충돌로 인한 죽음을 막는다. 그리고 황혼녘 둘은 극적으로 짧은 만남을 갖게 되지만 그 와중에 외친 것은 서로의 이름을 묻는 질문이었다.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불연속적 규칙과 매개에 의해 서로 몸이 바뀌는 타키와 미즈하는 만나기 위해 이름을 묻고, 만나기 위해 서로의 환경 속에 흔적을 남기며, 그리고 만나서도 서로의 이름을 묻는다. “이름을 잊으면 너를 잊는다.” 어른이 되어 우연히 마주친 둘은 외친다. “너의 이름은?” 이름은 사물에 앞선다.

여기서 왜 ‘너의 이름’ 인가? 라고 했을 때, ‘너’ 를 부르는 ‘나’ 가 있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부를 통해 내가 있고, 내가 아닌 것들로 내가 비로소 있기 때문에 ‘나’ 는 ‘너’ 가 있음으로 비로소 가능하다. 그렇기에 사물들의 이름인 언어는 상대적 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별을 위해 붙여지는 이름은 자기 현존을 증명하는 기호이다. 이 이름들을, 단어들을 자기 경험적 환경적 생각으로 인식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하면 어머니를, 책상 하면 의자를 생각함으로 단어의 원 뜻이 명확해진다. ‘너’ 를 부를수록 그래서 ‘나’ 가 뚜렷해진다. ‘너’ 를 발견함이 곧 ‘나’ 를 발견함에 다름없다. 인간의 정신은 ‘말’ 로

이루어지니, 속성을 일컫는 이름이 곧 ‘나’ 이다.

2. 결합을 위해 구분(이름)이 선행된다.

모든 인식의 출발점은 ‘구분’ 에서부터 시작한다. 인식이라는 것은 인식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에 앞서는 것은 그래서 ‘구분’ 이다. 구분하려면 먼저 이것과 저것을 나눌 수 있는 개념이 구분하는 주체 안에 선행되어야 하니, 이미 구분된 것이다. 구분의 이유는 서로 작용하기 위해 기능과 역할을 나눈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홀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 가 있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해바라기가 있기 위해 먼저 태양과 흙과 물이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존재는 상대를 전제했을 때 관계를 전제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한다는 것은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각자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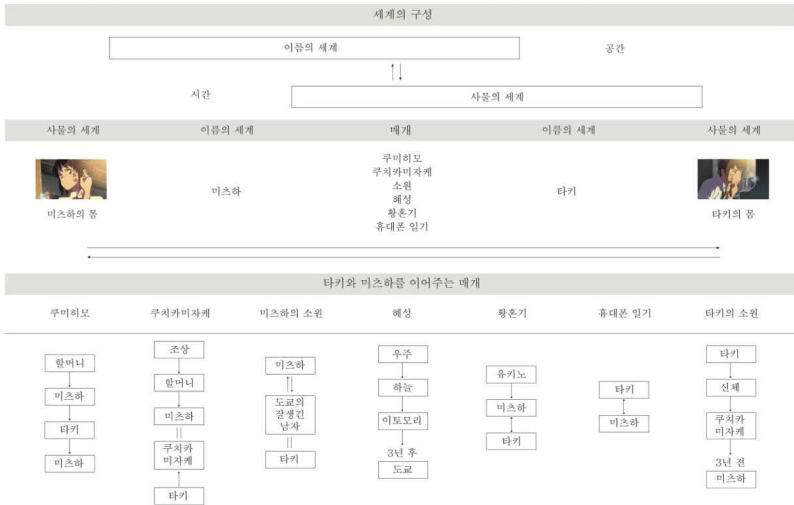


표 2. 세계의 구성과 타키와 미즈하를 이어주는 매개

“매듭 끈을 잇는 것도 무스비, 사람을 잇는 것도 무스비, 시간이 흐르는 것도 무스비, 이 모든 것은 신의 영역이란다.” 관계성에 놓여야만 비로소 존재하는 개체들의 세계이기에 미즈하의 할머니는 그래서 무스비(むすび: 맺음, 매듭)를 강조한다.

혼이 말에 깃들인 것을 고토다마(言靈)라 했고, 생성의 신덕(神德)을 혼과 관련시켜 ‘무스비’ · ‘쿠시비’ 라 했다. 여기서 ‘비’는 영(靈)을 뜻한다.⁷⁾ 고대 일본인은 이처럼 말에 ‘다마(魂, 영혼)’가 있다고 믿었다. 이름에 대해 사물이 주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대인 역시 느꼈기에 이러한 인연설이 전해 내려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내가 무엇과 결부될지를 내가 알 수 없음을, 구조를 인식했으되 구조의 주인은 아님을 아는 인간은 그래서 인연에 기대할 뿐이다. <너의 이름은.>에서는 모든 것은 관계를 통해 그 가치를 가진다는 일본의 전통 인연설에 기대어 미즈하의 할머니의 입을 통해 읊조리고 있지만, 단지 어느 지역의 국한된 설화의 한 조각이 아님을 알게 된 지금, 구분 짓게 하고 관계를 맺게 하고 가치를 지니게 하는 이름의 힘을 상기해 볼 때 이름을 불러주는 상대와 함께함에 내가 존재하며, 세계가 있음으로 내가 있고 상대가 있음으로 내가 있음을 다시금 돌아본다. ‘너’를 부를수록, 타인을 부를수록 ‘나’는 뚜렷해진다.

IV. 이름 없이는 만날 수 없는 세계

1. 사물과 이름은 서로를 부르나 만날 수 없다.

사물도, 인간도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립되어 그 자체가 죽음에 다름없다. 그렇기에 관계성에 들어가고자 모두가 애쓰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다. 태어나자마자 말을 학습하

7) 위키피디아, Your Name
https://en.wikipedia.org/wiki/Your_Name

는 것 역시도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관계성을 통해 나의 기능과 역할을 확인하여 존재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 곧 생명과도 같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계성을 이루기 위해 상대가 나에게, 내가 상대에게 반응할 조건을 먼저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곧 기능과 역할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인간은 이름을 통해 사물과의 반응의 조건을 이룬다. 이름이 있음은 곧 다른 것과 구분되었다는 것이기에 스펜서 브라운이 도덕경의 문장으로 시작한 서문과도 같이, 이름을 가짐으로 곧 세계에 개체로써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존재하기에 관계성에 들어갈 수 있다. 말은 이처럼 사물을 세계로 불러낸다. 내가 무엇에게로 가 닿을 조건, 무엇이 내게로 올 수 있는 조건. 이름으로 표상되는 언어는 그래서 마치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안내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의 토끼처럼 묘한 존재이다.

인간에게 있어 사물 바깥은 없다. 인간의 인식 구조가 오감으로 이루어진 감각의 체계이기 때문에 인식 바깥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물 바깥, 언어 바깥은 없으며 이는 이름의 바깥은 없는 것과도 같다. 사물을 만나려면 이름을 통해야만 그래서 만날 수 있다. 이름을 통해 만나려면 그 이름이 나와 동시대 동일한 장소의 조건을 가져야 한다.

테리다는 존재에 가 닿을 수 있는 언어의 길이 훼손되었음을 의심하며 기표와 기의를 해체시켰다. 만일 존재가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면, 그리고 만일 주어진 유일한 언어가 너무 훼손되어 존재의 순수한 메시지를 담을 수 없다면, 우리는 존재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⁸⁾

타키 황혼기가 이제... 끝난다.
저기 미츠하, 잠이 깨도 잊지 않도록 이름 적어
두자.

8) 뉴턴 가버, 이승중, 『테리다와 비트겐슈타인』, 동연, 2010, p.91.

(타키가 미즈하의 손바닥에 무엇인가 적는다.)

타키 자.

미즈하 응!

(황혼기가 끝나, 갑자기 사라진 미즈하와 바다에 떨어지는 펜)

(중략)

타키 너의 이름은 미즈하. 괜찮아. 기억했어. 미즈하, 미즈하, 미즈하.

이름은 미즈하. 너의 이름은

(다급하게 펜을 주워들고 손바닥에 적으려 한다.)

넌... 누구였지? 난 왜 여기에 온 거지? (중략)

잊고 싶지 않은 사람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

누구야? 누구였지? 누구야...누구야! 이름은,,!

(마음로 달려 내려가는 미즈하)

미즈하 타키! 타키! 타키! 괜찮아, 기억했어! 절대 잊지 않아

타키 타키 네 이름은... 타키!

(텃시와 함께 마을사람들을 대피시킨다. 중략)

미즈하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 안 나!

(중략)그 사람은 누구지? 소중한

사람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잊고 싶지 않았던

사람. 누구... 누구지?

넌 누구야? 너의 이름은..! 갈라졌어!

(혜성이 갈라져 떨어지는 것을 보고 헛디더 구른다.)

(잠에서 깨도 잊지 않도록 이름을 적어두자"

손바닥을 펴는 미즈하. 손바닥에는 "좋아해" 라고 써 있다.)

이래선 이름을 모르잖아.

(손을 쥐고 눈물을 흘리고는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

표 3. 황혼시에 만나 이름을 교환하는 타키와 미즈하

황혼시에 극적으로 만난 타키와 미즈하는 그 찰나의 순간 속 서로의 모습을 눈에 담는 것보다도 기억 속에 서로를 오래 간직하기 위해, 다음 만남을 위해 이름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 소중한 시간을 사용한다. 기억, 생각은 끝없는 반복 재생을 통해 순간을 영원처럼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존재는 이름을 통해 기억의 세계, 생각의 세계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 이름이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여 생각 속에 살게 한다. 이름이 상대에게로 가는 길이다. 이름을 잃으면, 그래서 상대를 잃는 것과 같다. 비단 타키와 미즈하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상대를 이름을 통해 기억하고 이름을 통해 찾아간다. 기표와 기의, 이름과 이미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묶여져 있다. 존재는 이름으로 치환된다.

2. 만날 수 없기에 의미부여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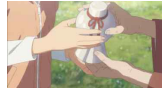
이름은 까닭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다. 혹은 기능하기를 바라며 그 의미를 담은 이름을 붙인다.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며 그 기원을 담은 이름을 붙여 부르고, 혹은 귀신이 빨리 잡아갈까 걱정하며 진짜 이름을 숨기고 개똥이라고 부르기도 하던 선조들의 일화를 생각해 보면, 이름은 그 존재의 가치 지속성과 미래를 염원하는 바램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가치와 기능을 상실하면 이름을 잃고 휴지통 속에서 같은 ‘휴지’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듯,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의 가치를 가지며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뒤집어 생각해 보자면, 이름 이전, 가치를 부여 받

쿠미히모(組紐)



미즈하의 할머니가 '무스비'를 가르쳐 준 매듭간이며 "모든 것은 인연"이라는 믿음을 상징한다. 평생시에는 미즈하의 머리끈이었다가 미즈하가 타키에게 건네주었을 때 타키는 부처처럼 팔짱을 끼고 앉았다. 또한 공교롭게도 미즈하는 타키에게 간을 주었기에 머리를 묶을 수 없어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자른 그 날 혜성충돌로 죽음을 맞는다. 영화에서 미즈하의 매듭간은 접촉 주체의 의미부여와, 상황에 따라 역할이 바뀐다.

쿠치카미자케(口噛み酒)



다양한 문화권과 역사 속에서 술은 '관계성'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왔다. 인간과 인간 사이, 신과 인간 사이(종교의식), 여러 관계성에 있어 마치 만능 신처럼 작용하며, 맺게도 하고 끊게도 한다. 이 작품에서의 쿠치카미자케는 산자와 죽은 자, 몸과 몸, 과거와 현재를 잇는, 현재의 타키와 과거의 미즈하를 잇는 역할을 한다.

황혼시(黃昏時)



낮도 밤도 아닌 - 낮과 밤이 만나는 시간. 타소가태 たそがれ (해가 저무는 황혼)에서 유래된 말이다. '誰だ(だれ) = 누구인가' '거기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라는 뜻도 된다. 어둠해져서 상대가 실사리 분별되지 않기에 시작하는, 어둠으로 넘어가는 시간. 이는 너의 이름이 무엇이나 묻는 영화체목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존재와 만날지도 모르는 시간이 황혼의 시간이다.

타키와 미즈하의 소원



산골마을 신사 집안의 딸로 태어나 원치 않는 가문을 이어받아야 하는 운에 미즈하는 도쿄에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소원을 외치고, 그 말대로 되어 도쿄 생활을 누리게 된다. 영화에서 타키는 그런 바람을 한 적이 없으나 마치 미즈하의 말을 이루기 위해 기회가 몸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나타난다. 또한 미즈하가 죽고 난 뒤 미즈하를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타키의 소원 덕인지 타키는 미야미즈 신체의 쿠치카미자케에 도달할 수 있게 여러 조력자들의 도움을 얻으며 과거의 미즈하의 몸에 들어간다.

혜성



타키와 미즈하의 이별과 만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자 극적인 요소. 혜성 또한 우주 공간에 있다가 구름을 뚫고 지구에 접촉하며 미즈하와 타키의 현재와 과거를 넘나든다. 카쿠리요(かくりよ, 격리된 세계) 경계를 넘어 세계를 흔드는 존재들이다. 혜성이 가져다 준 몸의 의해 지구의 바다가 만들어졌다든 주장, 지구에 생명의 씨앗과 물질들을 공급해왔다는 주장, 중생대 말 공룡을 비롯한 생물 대부분을 멸종시킨 거대 재앙의 근원이 혜성 충돌이라든 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었고 이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지구 생명의 창조자이자 파괴자, 운명을 생각하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휴대폰 일기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자 동시에 타자와의 관계를 잇는 휴대폰에 기록을 남길지도 타키와 미즈하는 몸이 바뀌었을 때의 상황을 서로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3년이라는 시간을 넘나들며 불가능한 연결을 가능한 연결이 되도록 일을 수행하지만 휴대폰의 주인인 미즈하가 죽게 되자 미즈하에 의해 기록되었던 문자마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다. 영화 속에서는 미즈하의 휴대폰이 특히 철저하게 사용자이자 주인인 미즈하에게 속하여 일을 수행하기에 논리적 맥락을 벗어난 매개체처럼 나타난다.

표 4. 접촉하는 주체에 의해 기의가 변형된 사물

지못한 사물은 마치 무의식에 잠긴 듯 현실로 건너지지 않은 상태이다.

인간이 언어의 완전한 주체인지 아닌지 현대 철학이 결론 짓기 이전, 자의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언어를 각자의 뜻대로 사용 가능한 입장이므로 자기 생각으로 의미 부여한 사물의 세계에 거주한다. 작품 속에서 타키와 미즈하를 매개할 때 사용되는 사물들은 본디의 기표와 기의 관계와 상관없이 그 기의가 변형된, 의미 부여된 사물들이다. 비단 그의 작품에서 뿐 아니라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자기 생각으로 의미부여한 사물의 세계를 산다. 누군가에게는 별 것 아닌 낯

은 것일지라도 나에게서는 소중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 하나쯤은 있지 않던가. 마코토의 작품에서 세계와 세계를 서로 만나게 해 주는 무스비의 역할을 하는 사물들은, 상황에 따라 그 사물에 접촉하는 주체가 의미 부여한 기능으로 작용하기에 매개의 법칙이 그래서 일정치 않다. <너의 이름은.>에서는 논리적인 규칙에서 떠나 자의적인 불규칙성 속에서 각 사물들은 본디의 이름의 기능과 상관없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사물에 부여된 의미와 역할은 지극히 개인적이기에, 언제든지 변형 가능한 감정 이입된 존재들이다. 그렇기에 본래의 기의는 행방이 묘연해지고 상황에 따라 투사된 자기 형편이 기의가 되어 그 이름으로 역할을 한다. 마코토의 세계에서 사물의 세계와 의미의 세계는 이렇게 그 관계를 잇는 법칙이 은폐된 채 병렬적으로 흐른다.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관계 속에서 존재 가능하게 되고 위치가 설정되는 인간은 환경의 주체가 아니기에 상황 따라 변형되는 형편 속에서, 관계 속에서의 자기 의미를 부여받음으로써 존재가 가능하게 된다. 관계의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인연이 나를 있게 하고, 관계가 나를 있게 한다. 우리가 ‘인연’을 말하고 찾는 것도 ‘나’의 존재를 더 낮게, 더 좋게, 더 가치 있게 입증하기 위함이 아닐까. 사물들의 세계에서 먼저는 ‘살’로 태어난 우리들은 언어를 학습하여 ‘말’의 세계, ‘이름’의 세계를 소유함으로써 더 높은 가치를 끊임없이 좇고 있다. 사물의 세계는 끊임없이 이름의 세계에 가 닿고자 하고 있고, 이름의 세계는 사물의 세계를 탐하고 있다. 상투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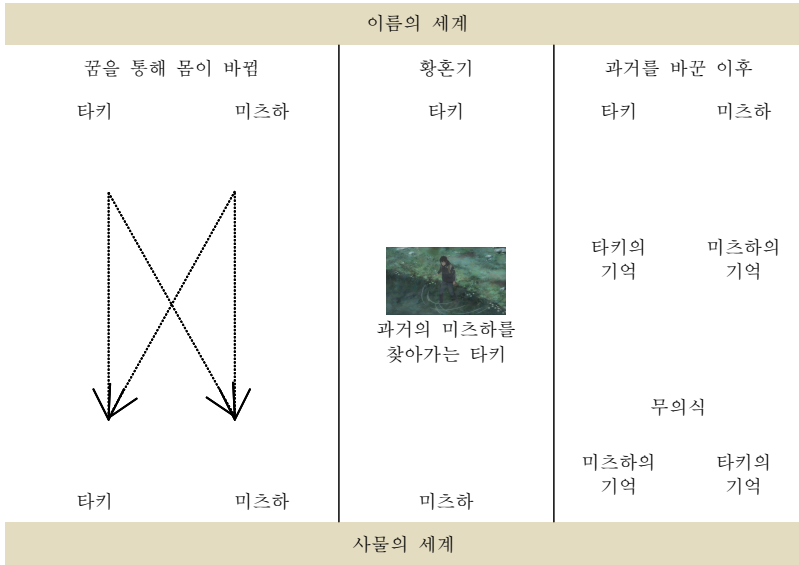


표 5. 이름의 세계와 사물의 세계를 넘나든 타키와 미즈하

V. 결론 및 제언

인간의 인식과 관념은 오감을 통한 경험에 기반하고 있기에 감각의 구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감각은 각자의 환경에 따라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용되니 그래서 인간의 언어와 생각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 관점을 기반 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 변치 않는 원리적 법칙을 따르기보다도 상황에 따라 좌로 우로 흔들리며 개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사물은 기능을 통하여 주체의 뜻을 이름으로써 비로소 존재한다. 명명한 이름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물은 이름과 분리되어 버려진다. 이름은 그 이름에 맞는 사물에 가 닿고, 사물은 그 기능에 맞는 이름을 만난다. 몸과 정신이 있음으로 인간이듯, 기표와 기의는 형식과 뜻의 문제로 관계한다. 머리를 묶는 기능과 인연의 실 사이의 기능을 오고 간 미즈하의 쿠미히모처럼, 산 자와 죽은 자, 인간과 신

을 잇는 역할까지 수행한 쿠치카미자케처럼, 낮과 밤의 만남이 산 자와 죽은 자의 만남에까지 의미가 확장되는 황혼시처럼, 마코토의 세계에서의 사물들은 접촉하는 주체의 바람과 사용 목적에 그 운명이 달려있고 또 사용되어진다. 타키와 미즈하 역시 이름을 통해 서로를 찾아간다. 이름을 통해 상대에 가 닿는다. 이처럼 인간도, 사물들도, 인간이나 사물이나 똑같이 ‘살’로 채워진 물질의 존재임을 생각할 때 모든 사물들은 이름과의 관계 속에 자신의 가치를 확보하되, 변치 않는 개념적 언어가 아닌, 상황에 따라 의미부여한 언어의 집을 짓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기표와 기의가 자의적이며 관계는 상황마다 사건마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데리다가 외친 기표와 기의의 해체는 기호의 자의성에 더하여 모든 가능한 형편을 다 수용하여 더욱 법이 부재하는 세계가 되어 버린다. 이는 인간이 몸으로 한번 태어난 후 언어 학습을 통해 두 번째 태어나는 것과 같음을 생각해 볼 때, 본디의 거주지는 사물의 세계이며 우리 스스로는 이름의 세계를 만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도 같다. 우리가 기표에서 출발해 기의를 확정할 수 없고, 기의에서 출발해 기표를 확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 데리다의 해체 개념을 통해 분석해 가는 과정 속에서, 데리다가 ‘산중’의 개념으로 기표와 기의에 대한 해석 보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세계에 대하여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음을, 곧 인간이 언어의 세계에 대하여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상기하며 우리가 곧 기표와 기의의 일부에 다름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내가 말을 통해 그 사물을 안다 하는 생각,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 바라게 되는 그 소유욕으로 사물과 관계를 맺는다. 말이 욕망하게 한다. 말이 몸을 만나 몸이 원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 말이 몸을 만나 감정을 만들어낸다. 말과 몸이 만나 일어난 감정이 소유욕으로 작용한다. 사물의 주체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이름을 얹어서 그 사물을 소유하고자 한다. 결국 기표와 기의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가질 수 없음에 인간은 언어의

주체가 아님을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끝없이 외롭다. 만남을 기대할 뿐이다. 나 역시 이름을 갖는 사물이기에 나의 이름과 나의 물성 사이에서, 그리고 만남의 세계 속에서 이름을 통해 길을 찾아보지만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않는 이름은 끝없이 미끄러진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묻지만, 그와 동시에 ‘딸’이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또한 인간이다. 우리는 언어의 사용자이지만 결국 언어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에, 언어를 통해 세계를 바라는 보되 종교적 해석에는 도달할 수 없기에 세계의 해석자 또한 될 수 없음이, 데리다의 해체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연구자는 분석하였다. 이것이 데리다의 ‘해체’와 ‘산중’의 관점을 통해 본 <나의 이름은.>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우리가 사는 세계인 사물들과 이름들의 이야기이다.

고대 적부터 무스비(むすび)를 기대해 온 우리의 모습은 이처럼 문명과 사상의 발전과 상관없이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데리다가 외친 해체 이후 이름의 세계에 편안히 머물 수 없어졌으니 도리어 몸을 더욱 신뢰하게 된 우리는 이름의 세계가 아닌 사물의 세계에 기거해 왔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타키와 미츠하가 서로 이름을 물음으로 존재를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름의 세계가 나를 불러줄 무스비(むすび)를 기대하며, 우리는 사물의 세계에 있다.

참고문헌

- 뉴턴 가버, 이승중,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 동연, 2010, pp.91.
디터 메르쉬, 문화학연구회 옮김, 『매체이론』, 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p.39.
박기수, 『애니메이션 서사 구조와 전략』, 논형, 2004. pp.306-307.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 1989. pp.252
Spencer-Brown, George. Laws of form, Bohmeier Velag, 2011.

위키피디아, Your Name

https://en.wikipedia.org/wiki/Your_Name, 2017. 8. 7.

위키피디아, Japanese box office record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D%BC%EB%B3%B8%EC%9D%98_%EC%98%81%ED%99%94_%ED%9D%A5%ED%96%89_%EA%B8%B0%EB%A1%9D&oldid=17528931, 2017. 8. 11.

BIFF 인터뷰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211026&memberNo=15205863>, 2017. 8. 17.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千と千尋の神隠し, 2001)

<너의 이름은.> (君の名は.. 2016)

ABSTRACT

Deconstructive reading of Makoto Shinkai's <Your name.君の名は.>

: Stories of things that cannot meet without their names

Ahn, Yoon-kyung · Kim, Hyun-suk

Makoto Shinkai, an animated film maker in Japan, has been featured as a one-person production system and as a 'writer of light', but his 2016 release of "Your Name" was a departure from the elements that characterize his existing works. At the same time, by the combination of the traditional musubi(むすび) story, ending these, it was a big hit due to its rich narratives and attraction of open interpretation possibility. As it can be guessed from the title of this work, this work shows the encounter between the Japanese ancient language and the modern language in relation to the 'name', and presents the image that the role of the name(language) is repeatedly emphasized with various variations in events for the perfect 'encounter'. In this work, the interpretations of Signifié for characters and objects are extended and reserved as a metaphorical role of the similarity, depending on the meaning of the subject which they touch. The relationship between words and objects analyzed through the structure of Signifiant and Signifié is an epoch-making ideological discovery of modern times revealed through F. Saussure. Focus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this and that from the notion of Saussure, Derrida dismissed logocentrism, rationalism that fully obeyed the order of Logos. Likewise, dismissing the

center, or dismissing the owner had emerged after the exclusive and closed principle of metaphysics in the west was dismissed. Derrida's definition of 'deconstruction' is a philosophical strategy that starts with the insight on the nature of language. 'Dissemination,' a metaphor that he used as a methodological concept to read texts acts as interpretation and practice (or play), but does not pursue an ultimate interpretation. His 'undecidability' does not start with infinity, but ends with infinity. The researcher testifies himself and identifies that we can't be an interpreter of the world because we, as a human are not the subject of language but a user. Derrida also interpreted the world of things composed of Signifiant and Signifié as open texts.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ed to read Makoto's works telling about the meeting of a thing and a thing with name as a guide, based on Derrida's frame of 'deconstruction' and 'dissemination.'

This study intends to re-consider which relationship the Signifiant and Signifié have with human beings who live in modern times,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ds and objects presented in this work through Jacques Derrida's destruction and dissemination concepts, and recognize that we are merely a part of Signifiant and Signifié.

Just as Taki and Mitsuha confirm the existence by asking each other, we are in the world of things, expecting musubi that a world of names calls me.

Key Word : Animation, Makoto Shinkai, Your name, Deconstructive, Derrida

안윤경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상학과 박사과정
(121-791)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94(상수동) 홍익대학교
greenjade.ak@gmail.com

김현석(교신저자)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121-791)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94(상수동) 홍익대학교
kylekim@gmail.com

논문투고일 : 2018.02.01.

심사종료일 : 2018.03.04.

게재확정일 : 2018.03.22.